

Migrant experiences in Australia: sample reading and responding task

Part A

Text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스 미나 김입니다. 부모님은 15년 전에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 오셨고, 저는 13년 전에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교포 2세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교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는 '세대', 즉 generation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교포 1세이고, 저는 교포 2세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교포 3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호주 사람일까요? 저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고향은 호주입니다. 저는 호주의 모든 것이 한국보다 더 좋습니다.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도 호주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은 베지마이트가 짜다고 하지만 저는 아주 맛있습니

저는 한국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있으며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김치나 김치 찌개처럼 매운 음식도 잘 못 먹고 설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저를 사용할 줄 알며, 서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큰 절을 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잘 못 합니다. 저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말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영어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 어른들을 만나면 한국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친척들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발음도 이상하고 표현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한국어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나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은 못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알고, 호주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런 한국 사람, 또한 자랑스런 호주 사람으로 살아갈 것 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ask 1

1. How long have Grace's parents lived in Australia?
2. What does Kyopo mean?
3. Give five details of what makes Grace feel more Australian than Korean.
4. Name three things she knows about her Korean background.
5. How does she feel about speaking Korean?
6. What are some of the comments made to her about her spoken Korean?
7. What does she decide is the solution to her dilemma?

Sample answers